

## 16. 나라를 위하여

이름: \_\_\_\_\_ ( )학년 ( )반 ( )번

날짜: \_\_\_\_\_ 년 월 일 ~ 월 일

### 【본문 학습】

문장

“余<sup>1</sup> 爲<sup>6</sup> 大<sup>2</sup> 韓<sup>3</sup> 獨<sup>4</sup> 立<sup>5</sup> 而<sup>7</sup> 死<sup>8</sup>”

여 위 대 한 독 립 이 사

余 나  
爲 위하다  
大 크다  
韓 나라 이름  
獨 홀로  
立 서다  
而 어조사  
死 죽다

풀이

• 而: ~해서

▶ “나는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 죽고

문장

爲 東 洋 平 和 而 死

위 동 양 평 화 이 사

爲 위하다  
東 동녘  
洋 큰 바다  
平 평온하다  
和 화목하다  
而 어조사  
死 죽다

풀이

• 而: ~해서

▶

문장

死 何 憾 焉

사 하 감 언

이리오?” 하고,

死 죽다  
何 무엇  
憾 한하다  
焉 어조사

풀이

• 何~焉: 무엇을 ~하리오?

▶

문장	<p>遂換着韓服하고 從容就刑하니</p> <p>수 환 착 한 복 종 용 취 형</p>	<p>遂 마침내 換 바꾸다 着 입다 韓 나라의 服 옷 從 좋다 容 모양 就 나아가다 刑 형장</p>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換着: 바꾸어 입다</li> <li>• 從容: 성격이나 태도가 차분하고 침착한 모양</li> </ul> <p>▶</p>	

문장	<p>年三十有二라.</p> <p>연 삼십유이</p>	<p>年 나이 三 셋 十 열 有 또 二 둘</p>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有: 또(又)</li> </ul> <p>▶</p>	

※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다.

※ 안중근 의사에게 배울 점은 무엇일까?

※ 학습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느낌은?

※ 학습을 통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 【어휘 학습】

### (가)

平 평평할 ·	• 華 꽃 ·	•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여 응어리진 마음.(원통)
要 구하다 ·	• 爭 다투다 ·	• 평온하고 화목함.(평화)
怨 원하다 ·	• 恨 한하다 ·	• 몸이 귀하게 되어 이름이 세상에 빛남.(영화)
競 다투다 ·	• 求 구하다 ·	• 받아야 할 것을 필요에 의하여 달라고 청함.(요구)
榮 꽂 ·	• 和 화하다 ·	• 같은 목적에 대하여 이기거나 앞서려고 서로 겨룸.(경쟁)

### (나)

公布 공포 ·	• 명령이나 결정 따위에 대하여 그대로 따라서 좋지 아니함.
愛國志士 애국지사 ·	•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림.
不服從 불복종 ·	• 몸을 가리거나 보호하기 위해 피룩 따위로 만들어 입는 물건.
衣服 의복 ·	• 물건을 팔고 사는 일.
賣買 매매 ·	•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이바지하는 사람.

### (다)

憂國 우국 ·	• 의로운 지사.
忠貞 충정 ·	• 나라를 위하여 절의를 굳게 지키며 충성을 다하여 싸운 사람.
記憶 기억 ·	• 자기 나라를 사랑함.
愛國 애국 ·	• 충성스럽고 절개가 굳음.
義士 의사 ·	• 나랏일을 근심하고 염려함.
烈士 열사 ·	• 이전의 인상이나 경험을 의식 속에 간직하거나 생각해 냄.

[위 단어들을 활용하여 추모의 글 써 보기]

윤봉길 義士		유관순 烈士	
--------	--	--------	--

## 【꼭 알아 듣시다】

### ■ 1인칭 대명사: 余(여), 吾(오), 我(아), 己(기)

- 吾亦不知(오역부지): 나 또한 알지 못한다.
- 知彼知己百戰不殆(지피지기백전불태): 저를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 己所不欲勿施於人(기소불욕물시어인): 내가 하고자 하지 않는 바는 남에게 시키지 마라.

## ■ ‘爲’의 쓰임

- 하다: 當爲(당위) 마땅히 하다.
- 되다: 爲人敏給(위인민급) 사람됨이 민첩하고 넉넉하다.
- 위하다: 爲人謀忠(위인모충) 남을 위하여 온갖 정성을 꾀함.

## ■ 의사(義士)와 열사(烈士)의 차이

‘의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항거하다 의롭게 죽은 사람으로, 성패에 상관없이 무력을 통해 적에게 대항한 사람을 말한다. 예)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

‘열사’는 나라를 위해 저항하다 의롭게 죽은 사람으로, 주로 맨 몸으로 싸우다 돌아가신 분이나 나라를 위하여 절의를 굳게 지키며 충성을 다한 사람을 말한다. 예) 이준 열사, 민영환 열사

## ■ 재판에서 안중근 의사가 말한 의거의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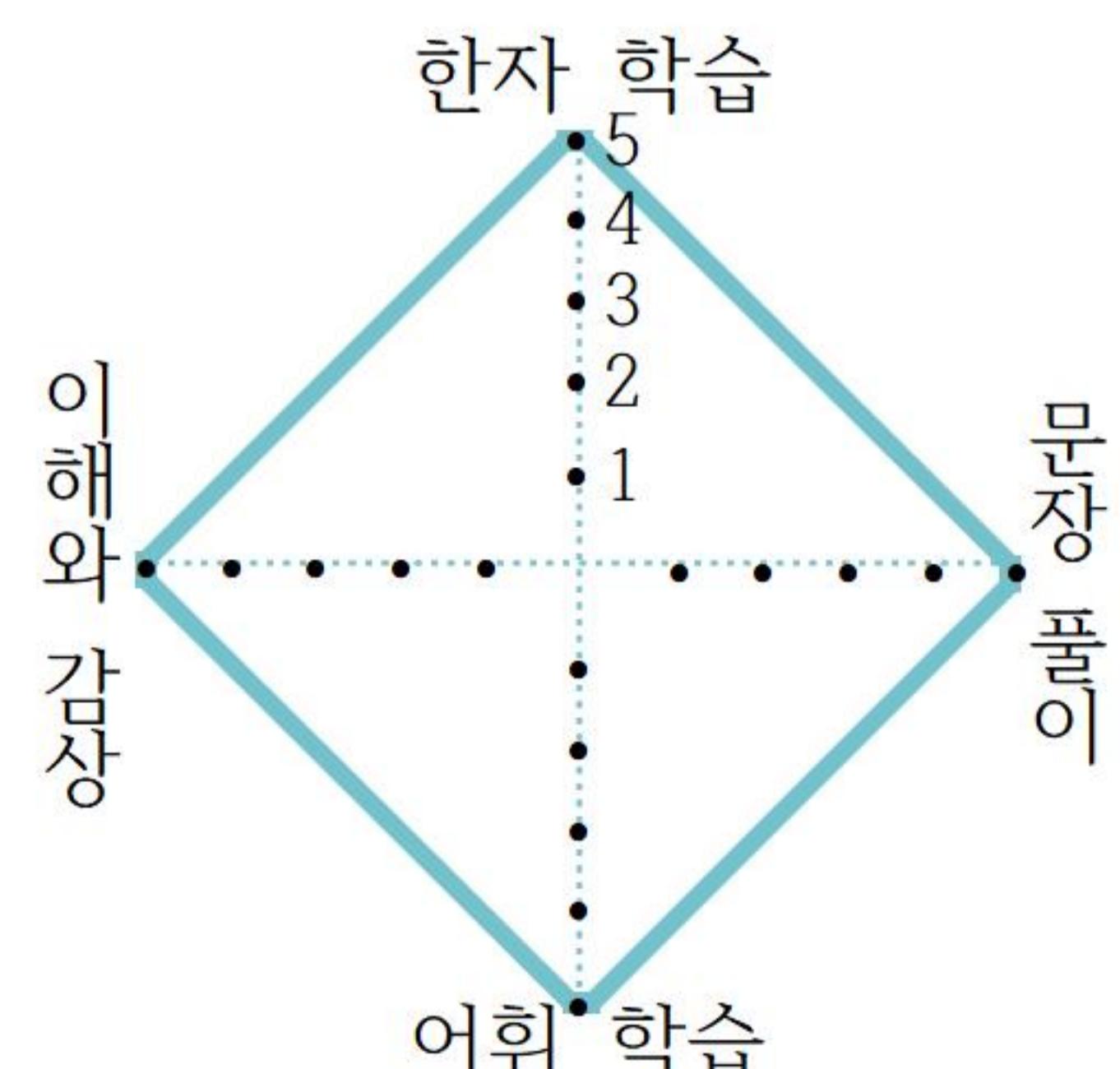
“내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것은 한국 독립 전쟁의 한 부분이요, 또 내가 일본 법정에 서게 된 것은 전쟁에 패배하여 포로가 된 때문이다. 나는 개인 자격으로서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요, 대한국 의군 참모 중장의 자격으로 조국의 독립과 동양 평화를 위해서 행한 것이니 만국 공법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라.”

## ■ 뢰순 감옥에서 남긴 최후의 유언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 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 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마땅히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동포들에게 각각 모두 나라의 책임을 지고 국민된 의무를 다하며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하여 공로를 세우고 업을 이루도록 일러 다오.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출처> 안중근 의사 기념관 <http://ahnjunggeun.or.kr>

### ※ 나의 학습 성취도 체크하기



이름: \_\_\_\_\_ ( )학년 ( )반 ( )번

날짜: \_\_\_\_\_ 년 월 일 ~ 월 일

## 17. 나눔이란

### 【본문 학습】

문장

萬<sup>1</sup> 德<sup>2</sup>이 取<sup>6</sup> 十<sup>3</sup> 之<sup>4</sup> 一<sup>5</sup>하여

풀이

- 十之一: 한문에서 분수 표현, 1/10

▶ 만덕이 십분의 일을 취하여

萬 일만  
德 덕  
取 취하다  
十 열  
之 ~의(어조사)  
一 하나

문장

以 活 親 族하고 其 餘 盡 輸 之 官이라.

풀이

- 之: 그것

▶

以 써  
活 살리다  
親 친하다  
族 겨레  
其 그  
餘 나머지  
盡 다  
輸 나르다  
之 그것  
官 관청

문장

浮 黃 者 聞 之하고 集 官 庭 如 雲이라.

풀이

- 浮黃: 오래 짚어 살가죽이 들떠서 붓고 누렇게 되는 병
- 者: ~(한) 사람

▶

浮 뜨다  
黃 누렇다  
者 사람  
聞 듣다  
之 그것  
集 모이다  
官 관청  
庭 뜰  
如 같다  
雲 구름

문장

男 若 女 出 하여  
남 약 여 출

男 남자  
若 및  
女 여자  
出 나오다

풀이

- 若: 및, ~와(과)



문장

而 頌 萬 德 之 恩이라.  
이 송 만 덕 지 은

而 어조사  
頌 기리다  
萬 일만  
德 덕  
之 ~의  
恩 은혜

풀이

- 而: ~해서



※ 나눔을 실천하는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다.

※ 만덕에게서 배울 점은 무엇일까?

※ 학습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느낌은?

※ 학습을 통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 【어휘 학습】

### (가)

親分 친분 •	갓 결혼하였거나 결혼하는 남자.
親善 친선 •	고맙게 베풀어 주는 신세나 혜택.
新郎 신랑 •	아주 가깝고 두터운 정분.
新聞 신문 •	어떠한 사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사고나 생각.
恩惠 은혜 •	서로 간에 친밀하여 사이가 좋음.
聖恩 성은 •	임금의 큰 은혜.
思想 사상 •	무엇을 하고자 하는 생각.
意思 의사 •	새로운 소식이나 견문.

### (나)

自選 자선 •	점점 줄어들어 다 없어짐.
慈善 자선 •	자그마한 뜻.
片志 편지 •	사람의 목숨을 구함.
片紙 편지 •	자기가 자기 자신을 선정함.
萬若 만약 •	위급한 상황에서 구하여 냄.
救急 구급 •	남을 불쌍히 여겨 도와줌.
救命 구명 •	어떤 대상에 대하여 정성을 다함.
極盡 극진 •	안부, 소식, 용무 따위를 적어 보내는 글.
消盡 소진 •	있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경우.

### (다)

幸福 행복 •	축하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행사.
祝祭 축제 •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을 느껴 행복한 상태.

## 【현수막 만들기】



## 【꼭 알아 둘시다】

### ■ ‘之’의 쓰임

- 분수 표현: 十之一 (1/10)
- 어조사(~의, ~한): 他山之石(타산지석) 다른 사람 산의 돌

- 동사(가다): 之南之北(지남지북) 자기 주변 없이 갈팡질팡함.
- 대명사(그것): 易地思之(역지사지) 입장을 바꾸어 그것을 생각한다.

### ■ ‘如’의 쓰임

- ~와 같다: 如反掌(여반장) 손바닥을 뒤집는 것과 같다. 일이 매우 쉬움.
- 만약: 如不可求, 從吾所好(여불가구, 종오소호) 만약 구할 수 없다면 내가 좋아하는 바를 따른다.

### ■ 조수삼의 “추재집(秋齋集)”에 그려진 만덕

만덕은 제주 기생이다. 재산이 많았는데, 한쪽 눈에 동자가 두 개였다. 정조 임자년에 제주도에 큰 흉년이 들자, 만덕이 곡식 수천 석과 돈 수천 양을 내어 그 지방 백성을 먹여 살렸다. 크게 가상히 여긴 정조가 사람을 시켜 그의 소원을 묻자, 아뢰었다. “만덕은 여자인데다가 천인이라 다른 소원은 없습니다. 소원이라면 오직 임금님을 뵙는 것과 금강산을 구경하는 것입니다.” 정조가 명해 파발마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게 했다. 약원 내의녀의 행수로 있게 하고, 역로에 명해 금강산도 구경하게 했다.

懷清臺築乙那鄉(회청대축을나향) 회청대를 제주도에 높이 짓고,

積粟山高馬谷量(적속산고마곡량) 곡식을 산처럼 내어 마곡에 쌓였구나.

賦汝重瞳眞不負(부여중동진불부) 그대 눈동자가 두 겹이어서 참으로 잘 보았으니,

朝瞻玉階暮金剛(조첨옥계모금강) 아침에는 임금님 뵙고 저녁에는 금강산 구경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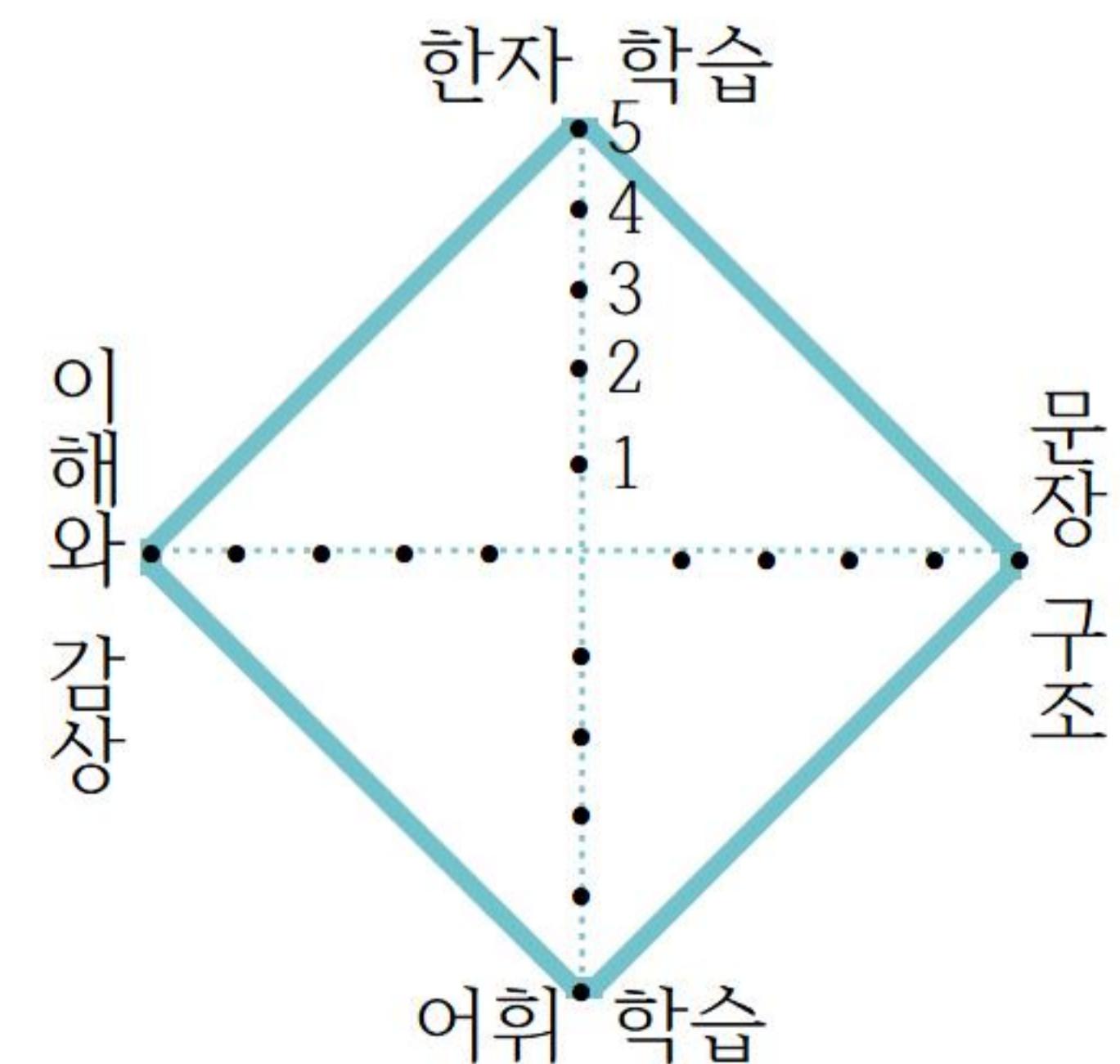
### ■ 나눔이란

나눔 기본법에 명시된 정의는 인간의 복지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물적·인적 요소의 이전 및 기타 공공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

- 물적 나눔: 금전 또는 물품 등 환가성 있는 유형의 이전 및 기타 공공복리에 도움이 되는 행위.
- 인적 나눔: 나눔 주체의 전문적 또는 비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등의 사용 및 기타 공공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 행위.
- 생명 나눔: 타인의 건강 증진 및 생명 연장을 위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 및 기타 공공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 행위.

<출처> 김만덕기념관 [www.mandukmuseum.or.kr](http://www.mandukmuseum.or.kr)

### \* 나의 학습 성취도 체크하기



## 18. 내 것이 아니고 네 것인데

이름: \_\_\_\_\_ ( )학년 ( )반 ( )번

날짜: \_\_\_\_\_ 년 월 일 ~ 월 일

### 【본문 학습】

문장	<u>洪</u> <sup>1</sup> <u>招</u> <sup>3</sup> <u>李</u> <sup>2</sup> <u>還</u> <sup>5</sup> <u>之</u> <sup>4</sup> <small>한데</small> <u>李</u> <sup>1</sup> <u>辭</u> <sup>2</sup> <u>曰</u> <sup>3</sup>	洪 성씨 招 부르다 李 성씨 還 돌아오다 之 그것 辭 사양하다 曰 말하다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之: 그것</li> <li>▶ 흥 씨가 이 씨를 불러 그것을 돌려주려 하니, 이 씨가 사양하며 말하길</li> </ul>	

문장	“銀雖吾祖之藏이나而無明文이라.” 은 수 오 조 지 장 이 무 명 문 이라.	銀 은 雖 비록 吾 나 祖 할아버지 之 ~의 藏 감추다 而 어조사 無 없다 明 밝다 文 글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而: 그러나</li> <li>明文: 글로 명확히 기록된 문구, 또는 어떤 조항으로 나누어 적은 글</li> <li>▶</li> </ul>	

문장	<u>家已售君</u> <sup>아니</sup> <u>銀亦君物</u> <sup>이라</sup> . “하고 <u>相讓不已</u> <sup>하나니라</sup> .”	家 집 已 이미 售 팔다 君 그대 銀 은 亦 또 物 물건 相 서로 让 사양하다 不 아니다 已 그치다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君: 그대, 너</li> <li>已: 그치다, 그만두다</li> <li>▶</li> </ul>	

문장	<u>至聞于官</u> <sup>하고</sup> <u>官白于朝</u> <sup>하니라</sup> .	至 이르다 聞 들리다 于 어조사 官 관청 白 아뢰다 朝 조정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至聞: 알려지다</li> <li>于: ~에</li> <li>• 朝: 조정(나라의 정치를 의논하는 곳)</li> <li>▶</li> </ul>	

문장	<p><b>上 教 曰 “吾 民 有 如 此 賢 者 하니</b></p> <p>상 교 월 오 민 유 여 차 현 자</p>	<p>上 임금 教 교지 曰 가로다 吾 나 民 백성 有 있다 如 같다 此 이 賢 어질다 者 사람</p>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教: 교지(왕이 신하에게 내리는 명령서)</li> <li>• 者: ~(한) 자, ~(한) 사람</li> </ul> <p>▶</p>	
문장	<p><b>誰 謂 今 人 不 如 古 人 乎 아?” 하고 命 分 其 半 하니라.</b></p> <p>수 위 금 인 불 여 고 인 호 명 분 기 반</p>	<p>誰 누가 謂 이르다 今 지금 不 아니다 如 같다 古 옛 乎 어조사 命 명령하다 分 나누다 其 그 半 반</p>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誰~乎: 누가 ~(인)가?</li> <li>• 不如: ~만 같지 못하다, ~가 더 낫다</li> </ul> <p>▶</p>	

\* 양심을 지키며 사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다.

\* 칭찬해주고 싶은 사람을 선택하여 칭찬의 글을 써 보자.

\* 학습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느낌은?

\* 학습을 통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 【어휘 학습】

### (가)

告白 고백 •	• 아침에 모든 구성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일.
白飯 백반 •	• 같은 왕가에 속하는 통치자의 계열. 그 왕가가 다스리는 시대.
自白 자백 •	• 일 년 중 찬 이슬이 내려서 가을다운 기운을 더해 준다는 날.
白露 백로 •	•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사실대로 숨김없이 말함.
朝會 조회 •	• 이른 아침.
王朝 왕조 •	• 자기의 죄나 허물을 남들 앞에서 스스로 고백함.
前朝 전조 •	• 흰밥.
早朝 조조 •	• 바로 전대의 왕조
宿命 숙명 •	• 특별한 명령. 또는 특별히 임명함.
命令 명령 •	•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
運命 운명 •	• 날 때부터 타고난 정해진 운명.
特命 특명 •	• 윗사람이나 상위 조직이 아래에게 무엇을 하게 함.

### (나)

急速 급속 •	• 기쁨과 즐거움.
舍屋 사옥 •	• 일정하게 쓸 만한 값어치가 있는 물건
物品 물품 •	• 아이를 보살펴서 자라게 함.
養育 양육 •	• 급하고 빠름.
喜悅 희열 •	• 사람이나 동물이 들어가 살기 위해 지은 건물.

### (다)

良心 양심 •	• 몸을 다쳐 부상을 입은 자리.
傷處 상처 •	• 자기 행위에 대해 선악과 시비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
勇敢 용감 •	• 어떤 내용이나 사실이 옳다고 인정함.
是認 시인 •	• 상장이나 훈장 따위를 줌.
失手 실수 •	• 용기가 있으며 씩씩하고 기운찬.
受與 수여 •	• 조심하지 아니하여 잘못함.

## [선한 댓글 써 보기]

댓글 쓸 기사:

[댓글]

## 【꼭 알아 둡시다】

### ■ 2인칭 대명사: 君(군), 汝(여)

- 諸君(제군) 그대들
- 汝我之間(여아지간) 너와 나의 사이

### ■ 개사란

개사는 명사나 대명사 등 명사류 앞에 놓여 그 명사류를 서술어와 연결해 주면서 쳐소, 대상, 도구, 시간, 원인, 비교 등의 뜻을 나타낸다.

- 志于學(지우학) 배움에 뜻을 두다.
- 日出於東(일출어동) 해가 동쪽에서 나오다.

### ■ 원전 읽기 - 돈을 양보하는 홍 씨와 이 씨

한성(서울) 오천에 사는 이 씨는 여러 대 부잣집이었으나, 증손 현손에 이르러 가산이 탕진되어 그 집을 홍 씨에게 팔았다. 대청의 기둥 하나가 기울어 무너지기에 이르자 홍 씨가 이를 수리하였는데, 일하던 중에 작은 은덩어리 삼천냥이 나왔다. 이 씨의 선조가 숨겨 두었던 것이었다. (본문) 두 사람 모두 벼슬을 내렸다.

讓金洪李(양금홍이)

洪家何管李金傳(홍가하관이금전) 홍 씨네가 어찌 이 씨네 돈을 가지랴.

辭者賢如讓者賢(사자현여양자현) 가져가라는 자도 어질지만 사양하는 자도 어지네.

聖世旌褒敦薄俗(성세정포돈박속) 임금께서 상을 내려 옛은 풍속 두텁게 하니

隣邦幾處息爭田(인방기처식쟁전) 이웃 여러 곳에서도 밭 다투기를 그쳤네.

### ■ “추재집” 권7에 실려 있는 ‘추재기이(秋齋紀異)’

조선 후기 도시 하층 서민들의 시정 생활을 그려 낸 것으로 그 구성 방식이 특이하다. 제목 아래 간단한 인물 중심의 일화를 적고, 그 내용을 다시 칠언 절구로 압축하여 놓았다. “추재집” 권8에 있는 6편의 전(傳)들은 저자의 생동하는 필치로 구사되어 있다. <참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 나의 학습 성취도 체크하기

